

소망의 여인들

소녀와 여인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김상순 : 혹시 딸 있으세요? ...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과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슬프셨나요? 기쁘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딸을 어떻게 키울지 또는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딸을 향한 어떤 꿈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원하셨을 거예요.

Intro theme

김숙경: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학교에 안보냈지요?

김상순 : 오늘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상에 글을 못 읽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여성이랍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녀들이 수백만명이나 되구요. 이 문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에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경 :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학교나 대학 등에 갈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네요.

김상순 : 확실히 특권입니다. 저도 딸 둘이 대학에 다닙니다. 물론 저희 천정 어머니도 딸이 셋을 대학 교육까지 가르쳤지만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딸들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아들과 똑같이 교육시키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김숙경 : 저희는 딸만 다섯입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딸들을 귀하게 키우셨지요. 그러나 지구상에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특히 공부에 차별을 받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상순 : 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그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숙경 :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저에게 삶에 목표를 가지도록 하신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차별이 조금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여성으로써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김상순 : 교육이 단지 좋은 취업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건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성취감과, 자신을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하는 감정, 내가 가정과 사회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공헌한다는 느낌을 배우는 것이지요.

김숙경 : 완전 공감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여성들이 공부할 권리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도 했지요.

김상순 :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더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집안의 잡일들을 하거나... 또는 일찍부터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김숙경 :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아들과 차별없이 지내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생계를 위해 학교를 떠나 공장에 취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Music 음악

김숙경 : 여러분들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여성들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김상순 : 유엔은 보고하기를 “교육받은 소녀들은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더 많은 소득을 벌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교육받은 여인은 가족 안에서 의논하고 협상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유엔 FPA보고서)

김숙경 : 그 말씀은 교육받은 여인들이 집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교육받지 못한 여인들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김상순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받은 여인들은 자기 남편이 음주나 도박으로 돈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의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러한 일들이 가족의 돈과 가족의 교육을 앗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김숙경 : 교육받은 여인은 집 밖에서 일을 해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나 옷, 또는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김상순 : 그러나 돈뿐만 아니라 교육이 소녀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로 영원한 변화중 하나는 위엄과 자존감입니다. 한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은 마을 출신의 몇몇 여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되어질 때 마다 깊은 수치심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관리들이 서명대신 지장을 찍어 갔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잉크는 몇일을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니다. 그 잉크는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표시였던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명할 때는 자신감을 갖고 합니다.

김숙경 : 그분들에게는 큰 차이이었겠네요. 여러분들께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딸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나요?

김상순 : 이전에 학교 공부를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다른 여러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직업적인 공부를 포함해서 어느 곳에는 읽고 쓰는 공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 창피하다구요?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너무 창피해 마시고 배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김숙경 : 이전에 어느 할머니는 손자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같이 공부를 하셨답니다. 이건 무슨 글자냐 하고 물으면 손주들이 읽어주고 그렇게 따라 배우셨답니다.

김상순 :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주변에 공부를 가르쳐줄 곳에 많이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도 배우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면 아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김숙경 : 조사에 따르면 아님이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더 우수하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그 공부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김상순 :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공부하세요. 그리고 딸들, 손녀들을 공부시키세요. 어떻게 공부시킬지 모르겠다구요? 주변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으시면 상담해 보세요.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김숙경 : 소녀들이 교육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걸까요? 아마 이 문제가 소녀들에게, 가족에게, 또는 나라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겠지요. .

김상순 : 말랄라라는 소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말랄라는 자기나라와 전세계에 있는 소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온 자기 인생이야기를 책으로 썼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는 말랄라입니다”입니다.

어느날 말랄라가 11세 되었을 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버스는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산 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그 버스에 어떤 젊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여기 말랄라가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말랄라는 영문을 모른체 ‘제가 말랄라인데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들은 말랄라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11살 밖에 안된 소녀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발로 말랄라의 얼굴을 관통하여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함께 탔던 말랄라의 친구들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숙경: 엄청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왜 남자들이 어린 소녀에게 총을 쏘았나요?.

김상순 : 말랄라가 마을을 점령한 테러조직이 여자들을 학교에 가지 말라는 법을 만들자 당시 11살 이었던 어린 소녀가 용감하게도 소녀들이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테러 조직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말랄라에게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도 테러범들을 말랄라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상처가 남아 일년에 몇차례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말랄라는 전 세계의 소녀들의 공부할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살인 협박범들을 피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말랄라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랄라가 16살이 되었을 때 유엔에서 세계각국의 빈곤국가에 사는 많은 소녀들을 대변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말랄라는 강하게 쳤습니다. “한어린이와 한 선생님. 한자루의 펜과 한권의 책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랄라는 단지 모든 나라, 모든 마을, 모든 거리, 모든 가족이 평화로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음악

김숙경 : 여러분들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김정라 :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다른 고장들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자주 자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마다 열린 야외공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은 그 지역의 회당이나 사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지식적인 일이나 종교관행에 관하여 배우는데 포함되는 것은 아주 드문일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여인들과 의논하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자주 들리시곤 하시던 한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던 한 가족도 있었답니다. 그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동생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구인 이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날 예수님과 예수님을 특별히 따르는 제자들이 마르다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38-42)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는 마르다가 참 관대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기 원했어요. 아주 특별하고 성대한 저녁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일은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마르다는 당연히 마리아가 도와주리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손님이 집을 방문할 때면 항상 자기 언니를 도와주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방문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 맞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저도 그날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계셨을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듣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가 어떤 심정인지 말씀드린게 버릇없어 보이나요? 마르다가 어떤말을 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는 분명히 화가나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때 마르다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했는데 그분이 돌아서서 말하기를 “오, 바보같이 왜그러니, 너 화낼 필요없어...다 괜찮단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괜찮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한번 말해야 겠죠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나 만일 그분이 말하기를 “오, 네가 뭐에 대해 화가 났는지 알겠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것 같으세요? 즉시로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신 거였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의 감정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해달라고 요청한 일을 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를 도우라고 말하셨나요? -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에 관하여 말씀하신 고요하고 부드러운 말들을 들어보세요. “몇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택한 편은 무엇인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택했어요. 마리아는 마음과 혼을 다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빠져있었어요.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만 예수님으로 부터 배우는게 괜찮은게 아니라 마르다도 역시 배우는게 좋은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한가지만이라도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기분을 낮게 했으리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마르다도 그날 아주 중요한 어떤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와서 내 기분이 어떤지 말씀드리는 아주 정확히 바른 일을 했던 겁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처음 두 단어를 들으셨어요? “내 친애하는 마르다야...”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정말 신경쓰신다는 것을 눈치 채실 수 있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문경 : 저는 마르다가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갈 때 한결 기분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르다가 그 식사를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잖아요. 마르다는 식사 준비가 끝나고 다 준비 되었을 때 감사한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제 자기

동생인 마리아가 그저 생각 없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행복했어요. 그 날에 나눠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으리라 믿어요.

김정라 :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세요, 또는 누군가에 의해 잘못 대접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런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숙경 :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니까요. 소망의 여인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배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